

# 전주 팔경시의 형성과정 및 특성 연구\*

정 훈(전북대)

## 〈 목 차 〉

- |                      |                   |
|----------------------|-------------------|
| 1. 팔경의 전래와 전주의 승경 형성 | 2) 조선후기 전주 팔경의 특징 |
| 2. 전주 팔경의 형성과 특성     | 3. 팔경의 변화가능성      |
| 1) 조선전기 전주 팔경의 특징    |                   |

## 1. 팔경의 전래와 전주의 승경 형성

승경(勝景)을 주제로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8폭에 나누어 그린 그림으로,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사시팔경도(四時八景圖), 관동팔경도(關東八景圖), 관서팔경도(關西八景圖), 송도팔경도(松都八景圖), 한양팔경도(漢陽八景圖) 등이 있다. 소상팔경은 중국 호남성에 위치한 동정호(洞庭湖)와 남쪽 영릉(零陵)부근으로 소강(瀟江)과 상강(湘江)이 합쳐지는 근방의 여덟 경관을 말한다. 소상팔경을 처음 그린 사람은 북송대의 송적(宋迪)으로 알려져 왔으나, 10세기경인 5대10국 시대에 이성(李成, 919~967)이라는 사람이 처음 그렸다고 한다.<sup>1)</sup>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35C-2011-2-A00426).

1) 소상팔경과 관련하여 그림이 먼저 이루어졌는가, 시가 먼저 이루어졌는가를 따로 언급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장리(2002, 23)는 심약의 <팔영시>에서 팔경시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상팔경도>에 대해서, 전경원(2007), 송희경(1992)은 북송시대 송적(宋迪)에 의해 시작되었다기보다는 그보다 100여 년 빠른 시기인 오대십국(五代十國)때의 이영구(李營邱), 일명 이성(李成, 919~967)

소상팔경도는 '산시청람(山市晴嵐), 연사모종(煙寺暮鐘), 원포귀범(遠浦歸帆), 어촌석조(漁村夕照), 소상야우(瀟湘夜雨), 동정추월(洞庭秋月), 평사낙안(平沙落雁), 강천모설(江川暮雪)'로 이루어졌다. 소상팔경은 처음에는 실경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정형화되어 아름다운 경치의 대표적인 예로 간주되었고 승경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소상팔경은 수많은 문인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약 700년 이상 그에 관련된 수많은 작품들을 탄생시켰다.<sup>2)</sup> 소상팔경이 전해진 초기에는 소상팔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창작되었지만, 시대가 흐르고 작자층이 양반 서민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시의 내용 및 지역도 그 지역에 맞게 변하였고, 한편으로는 관념화·정형화되어 가는 경향이 심화되었다.<sup>3)</sup>

지금까지 소상팔경과 관련해서는 문학적 측면, 미술사적 측면, 문학과 회화를 아우르는 측면, 전통조경 및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먼저 문학적 측면에서 이희승, 성원경, 임창순, 정운채, 정용수, 임재완, 안장리, 김신중, 정민, 김남기 등은<sup>4)</sup> 소상팔경을 구성하는 풍경 요

이라는 사람이 소상팔경도를 그렸다고 주장하였다.

2) 팔경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창작된 장르는 한시와 그림이다. 이는 '소상팔경'이란 소재가 양반층에게 매우 중요한 문학적 소재였음을 드러낸다. 『한국문집총간』의 색인에 따르면 팔경시의 형식으로 지어진 작품은 무려 208수나 된다. (여기현, 「소상팔경의 수용과 양상」, 『중국문학연구』 25집, 315쪽에서 재인용)

3) 전경원, 『소상팔경 - 동아시아의 시와 그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7, 27쪽.

4) 이희승, 「가사 〈소상팔경〉 해설」, 『문장』 3집, 1939.

성원경, 「소상팔경이 국내팔경에 미친 영향고」, 『석계조인제박사 환력기념논총』, 1977.

김기탁, 「익재의 〈소상팔경〉과 그 영향」, 『중국어문학』 13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81.

임창순, 「비해당 〈소상팔경시첩〉 해설」, 『태동고전연구』 5집, 태동고전연구소, 1989.

여기현, 「〈소상팔경시〉의 표상성 연구」(1), 『반교어문연구』 2집, 반교어문연구회, 1990 외 다수.

최경환, 「이인로와 진화의 『송적팔경도』 시 대비」, 『한국고전연구』 1권, 1995.

정운채, 「소상팔경을 노래한 시조와 한시에서의 경의 성격」, 『국어교육』 79·8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2.

정용수, 「이후백의 소상팔경가 변증」, 『문화전통논집』 창간호, 경성대 향토문화

소, 중국의 소상팔경시가 국내에 미친 영향, 소상팔경시의 표상성(表象性), 한국 팔경시의 형성단계 등을 연구하였다.

‘소상팔경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사적인 연구<sup>5)</sup>에서는 소상팔경도의 전래 및 팔경문화의 생성과정, 팔경의 각 특징, 시대별 소상팔경도의 특징, 중국 남송의 선적(禪的) 취향이 소상팔경도에 미친 영향 등을 살핌으로써 소상팔경도가 작가의 이념과 자연 간의 교류를 중시한 심상의 산수화라는 점을 증명하였다.

문학적 및 미술적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문학과 회화를 아우르는 학제간 연구<sup>6)</sup>가 이루어졌다. 조은심, 고연희 등은 시와 그림으로 수용된 소상팔경이 다양한 장르 접근을 통해 향유층의 저변 확대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한편, 최기수는 전통조경 및 도시공학적 측면<sup>7)</sup>에서 소상을 통해 전통문화속의 경(景)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고, 소상팔경에서 수용된 경의 관점이 우리의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도 각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팔경이 존재한다. 국가 단위의 팔경은 물론 관동팔경, 밀양팔경, 충주팔경 등과 같이 지역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다면적인 선행 연구에도 불구하고 관동팔경 지역<sup>8)</sup>을 제외하고는 소상

연구소, 1993.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5) 안희준, 「한국 소상팔경도 연구」, 『한국회화의 전통』, 문예출판사, 1988.

강미숙, 「한국의 소상팔경도에 나타난 미의식 고찰」, 한남대학교 석사, 1992, 69-71쪽 참조.

송희경, 「중국 남송의 소상팔경도와 그 연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1993.

김순명, 「조선시대 초기 및 중기의 소상팔경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 1992.

6) 조은심, 「소상팔경도와 소상팔경시의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석사, 2001.

고연희, 「소상팔경, 고려와 조선의 시화에 나타나는 수용사」, 『동방학』 9집,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03.

7) 최기수, 「曲과 景에 나타난 한국전통경관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 1989.

8) 관동팔경 지역은 관동지방의 이름난 여덟 곳을 말한다. 영동팔경이라고도 하는데, 통천의 충석정, 간성의 청간정, 양양 낙산사, 고성 삼일포, 강릉 경포대,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평해 월송정 또는 흡곡의 시중대를 일컫는다. 관동팔경 지

팔경과 각 지방의 팔경시<sup>9)</sup>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이다.<sup>10)</sup>

본고에서는 지역의 승경 중에서도 전주라는 지역에 주목하였다. 국내의 이름난 명승지와 관련된 팔경 혹은 십경 등은 과거 소수의 양반들에 의해 향유되고 이용되었던 문화였지만 지금은 주요한 관광지이자 문화유산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주의 승경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전통조경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sup>11)</sup> 이러한 학문적 전통에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소상팔경이

---

역은 대대로 경치가 유명한 곳으로 평이 자자하여 이와 관련된 시문이 많았기에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할 수 있었다.

9) 안장리(2002)가 『한국문집총간』 1-160권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상팔경시는 28수이고, 지명+팔경의 형태로 된 것은 27수이다. 이 조사에는 전주팔경 완주팔경 혹은 풍패팔영이라는 지명과 연관된 승경은 빠져 있다. 전주와 연관된 승경으로 서거정이 지은 浦鄕十詠, 조수삼이 지은 全州八景, 그리고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려 있는 완주32승경 등이 있다.

10) 토착지역의 팔경에 대한 연구목록은 아래와 같다.

박영주, 「관동팔경과 누정문학 유산」, 『도남학보』 19집.

정의돈, 「관동팔경 누정시 연구」, 강릉대 석사, 1999.

용환진, 「관동팔경의 경관특징에 관한 고찰」, 『한문고전연구』 9집.

김선일, 「관동팔경의 경관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 시립대 석사, 1992.

박영순, 「전주 한(韓)문화와 전주팔경」, 『국토』 317호, 2008.

박영순, 「황산벌과 논산팔경」, 『국토』 303호, 2007.

안장리, 「소상팔경시와 삼척팔경시의 차운양상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5집, 이외.

11) 김경문·권혜진·노재현, 「完山 32勝景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완산주의 공간 및 경관 인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4, 2009. 12.

신상섭·노재현·한광수, 「전통경관 정체성 진단을 통한 역사문화경관 탐방 네트워크 개발-전주 팔경권역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2, 2005. 6.

신상섭·노재현, 「경관정체성 향상을 위한 전주팔경의 해석」, 『한국조경학회지』 26-4, 1999.

신상섭, 「역사도시 전주의 경관문화재」, 『환경과 조경』 95집, 1996.

진희성·노재현, 「팔경의 의미체함에 따른 풍경개념의 구조」, 『한국조경학회지』, 19-1, 1991.

정훈·손애화·박완식, 『전주 한벽당』, 신아출판사, 2011, 이외.

한국에 유입된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주팔경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피고, 전주팔경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조수삼(趙秀三)의 『추재집(秋齋集)』에서 발견한 여덟 편의 시가 ‘전주팔경’을 형성한 기본형이라는 인식하에, 전주팔경이 기존의 소상팔경과는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확립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선시대 양반 지식층의 삶과 문화가 현대인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을 밝히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곧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며, 지역관광과 연계한 스토리텔링에 풍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2. 전주 팔경의 형성과 특성

전주는 백제시대 완산, 고려시대에 전주목 완산부, 조선시대 전주부로 불리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 현재까지 전해오고 있는 자료 가운데 전주의 풍물 경관을 짐작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많지 않다. 서거정이 <패향십영(沛鄉十詠)>이라는 제목으로 전주부의 승경을 노래한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완산32경이 소개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 성도숙사(成島淑士)는 경기전(慶基殿), 공북정(拱北亭), 만경대(萬景臺), 덕진지(德眞池), 조경단(肇慶壇), 쾌심정(快心亭), 오목대(梧木臺), 대원사(大圓寺)를 전주부의 명승지로 선정한 바 있다.<sup>12)</sup>

전주팔경(혹은 완산팔경) 또는 전주십경이 구전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한시와 세부적인 내용 등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수삼의 『추재집』에서 새롭게 발견한 여덟 편의 시가 현재의 전주팔경을 형성한 기본형으로 인식하고, 전주팔경이 시기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전주팔경을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2) 成島淑士, 『朝鮮名勝詩選』, 경성, 연문사, 대정4(1915), 161-162쪽.

1) 조선전기 전주 팔경의 특징

전주 지역의 승경과 관련한 용어로는 ‘패향십영’, ‘전주팔경(혹은 완산팔경), 전주십경, 완산32경’ 등이 있다. 이중 문헌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조선초 서거정이 전주부의 승경을 노래한 패향십영(沛鄉十詠)이다.

경기전(慶基殿)

手提金尺靖東韓  
闕殿眞容爲奉安  
好是龍興根本地  
千秋蕉荔謹黃丹

손수 금척을 쥐고 동한을 평정하셨기에  
깊고 그윽한 신전에 진용을 봉안하였네  
훌륭하다 예가 바로 용흥의 근거지이니  
노란 파초 붉은 여지를 천추에 올리리다

견훤도(甄萱都)

猾賊當時事險微  
蕭牆奇禍不堪譏  
可憐四十年間業  
城郭依稀鶴語非

교활한 적은 당시에 음험을 일삼았는데  
뜻밖의 집안 재앙은 가소롭기 그지없네  
가련도 하여라 사십 년 동안 별인 사업이  
성곽마저 희미해 학의 말대로는 아니로세

만경대(萬景臺)

臺高千仞倚青空  
俛仰乾坤萬里通  
莫說甄郎興廢事  
青山默默鳥飛中

천 길이나 높은 대가 창공에 솟아 있어  
위아래 천지 사이에 만 리가 탁 트였네  
견훤의 흥망에 관한 일을 말하지 마소  
청산은 말이 없고 새만 높이 나는구나

기린봉(麒麟峯)

山河磅礴瑞輪困  
仙李盤根奔葉春  
豐鎬由來形勢異  
請君來此看麒麟

산하의 웅만한 기세에 상서가 우뚝해라  
선리가 뿌리를 내려 대대로 봄이로다  
풍호는 예로부터 형세가 유독 달랐거니  
그대는 이곳에 와서 기린봉을 보게나

봉황암(鳳凰巖)

甄家兩顆不才兒  
梟獍爲心豚犬姿  
當日鳳凰去何處  
如今覽德自來儀

견훤의 집 두어 자식은 못나기 그지없어  
효경 같은 심술에 둔견 같은 자질이었네  
그 당시엔 봉황이 어느 곳으로 갔던고  
지금은 덕을 보고 스스로 내려왔는걸

건지산(乾止山)

虎擲龍疲一雲空  
江山依舊雨昏濛  
傷心莫問濟羅事  
多少峯巒露碧葱

용과 범의 싸움이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강산은 예전대로 비만 자욱이 내리누나  
상심되거나 백제 신라의 일은 묻지 마소  
하 많은 산봉우리만 우뚝우뚝 푸르구러

덕진연(德津淵)

以德名津語不空  
澤民曾有濟時功  
誰知泓臥龍行□  
十雨時能又五風

덕으로 이름 지은 그 말이 헛되지 않았도다  
백성에게 은택입혀 세상 구제한 공이 있네  
그 누가 알리오 깊은 못에 용이 누워서  
때로 능히 십우와 오풍을 행사하는지

공북정(拱北亭)

北望神州稽首欽  
華山高聳碧抽簪  
南州冠蓋多於織  
戀闕思君只此心

북으로 대궐 향해 경건히 머리 조아릴 제  
우뚝 솟은 화산은 흡사 벽옥잠 같아라  
남쪽 고을 관리들은 유독 많기도 한데  
대궐과 임금 사모하는 그 마음뿐이었네

제남정(濟南亭)

濟南佳麗惱人多  
憶昔昔騰盡醉過  
爲問今時老□□  
□□□□□□□

제남정 화려한 경치는 펍 사람 들뜨게 하여  
내 옛날 잔뜩 취해서 곧드레가 된 적 있네  
문노라 지금은 --- (이하 원문 누락)

쾌심정(快心亭)

畫棟朱甍對碧岑  
竹林蒼翠轉深深  
何時賢尹一樽酒  
快盡平生未快心

단청 화려한 정자가 푸른 산 마주했는데  
푸른 대나무 숲 돌아서 깊숙이 들어가네  
어느 때나 어진 부윤과 술자리를 열어서  
평소 울적한 마음을 유쾌히 다 풀어볼꼬<sup>13)</sup>

서거정은 한상 이봉(李封)이 보내준 시에 차운하여 전주의 풍경으로 열가지(패향십영)를 노래하였다.<sup>14)</sup> 성화(成化) 계묘년(1483)에 이봉은 전주부윤으

13) 徐居正, 『四佳集』, 권45, 21쪽.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문을 실었음.

14) 이한산(李韓山)의 이름은 이봉(李封, 1441~1493)으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로서 전주부 객관 동북쪽에 매월정을 세우기도 하였다.<sup>15)</sup> 이봉과 서거정은 자주 시문을 주고받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로 위의 시는 서거정이 당시 전주 부윤이던 이봉에게 보낸 것이다.

서거정은 전주 이씨(全州李氏)의 발상지라는 의미에서 전주를 ‘폐향(沛鄉) 또는 풍폐지향(豐沛之鄉)’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 고조(漢高祖)의 고향이 폐군(沛郡) 풍읍(豐邑)이었던 데서 전하여 제왕(帝王)의 발상지(發祥地)임을 가리킨다. 서거정이 꼽은 전주의 열 가지 경치는 경기전(慶基殿), 견훤도(甄萱都), 만경대(萬景臺), 기린봉(麒麟峯), 봉황암(鳳凰巖), 건지산(乾止山), 덕진연(德津淵), 공북정(拱北亭), 제남정(濟南亭), 쾌심정(快心亭)이었다. 이들 가운데 현재의 전주 팔경과 겹치는 것은 ‘기린봉(麒麟峯), 덕진연(德津淵), 건지산(乾止山)’ 정도이다. 서거정이 노래한 공북정, 제남정, 쾌심정 등은 후대에 이르러 누정이 사라지면서 팔경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sup>16)</sup>

서거정 다음으로 전주팔경을 노래한 이는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이다. 구봉령은 1568년에 전라도에 나가 재상(災傷)을 안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1583년에는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였다. <빈일헌십영차운(賓日軒十詠次韻)>은 이 시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작품이다. ‘빈일(賓日)’은 부산 동래 왜관에 있던 건물로, 일본 사신을 맞이하던 곳이다. 구봉령은 <빈일헌십영>에 차운하였다고 밝혔지만, 10편의 시를 다 짓지는 않았다. 다만 <전주팔경>에 맞추어 건지산(乾止山), 견훤도(甄萱都), 경기전(慶基殿), 공북정(拱北亭), 기린봉(麒麟峯), 봉황암(鳳凰巖), 제남정(濟南亭), 쾌심정(快心亭) 등 여덟 곳을 차운하였다.

一戎神烈堵東韓      갑옷을 입고서 매섭게 동한을 안정시키니  
百戰山河永安      수백 번 싸움터는 길이 평안하게 되었네

번중(蕃仲), 호는 소은(蘇隱), 시호는 헌평(憲平)이다. 1465년(세조 11)에 별시 문과에 급제한 후, 우승지, 이조참판, 전주부윤, 호조판서,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문장으로 명망이 높았다.

15) 『신증』 33권, 전라도, 전주부 편.

16) 보통 팔경 혹은 팔영에 쓰이는 소재명은 대체로 <지명+풍경>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거정이 사용한 소재명은 지명이나 누정에 사용되었던 이름들을 그대로 시의 제목으로 사용한 점이 특색이다.



繡戶雕梁瞻仰處 수놓은 문 조각 들보를 우러러 바라보니  
孤臣白髮血心丹 고신은 백발이 되어도 붉은 마음뿐  
右慶基殿(경기전)

濟羅分界竝衰微 백제 신라 싸우던 경계도 사라지고  
奸孽圖王況足譏 얼자가 왕을 바라는 말할 가치도 없네  
畢竟人心歸有德 사람 마음은 끝내는 덕 있는 곳으로 가니  
當年雲物已全非 당년에 풍정이 이미 바꾸어 졌다네  
右甄萱都(견훤도)

溪上晶熒碧玉岑 푸른 옥 같은 봉우리는 시냇가에 빛나고  
白虹搖影透蒼林 햇빛 비치는 숲에는 흰 무지개 일렁이네  
落紅來處尋無路 길도 없이 해 떨어지는 곳을 찾아가니  
一曲瑤琴寫客心 가야금 한곡조가 객의 시름 그려내네  
右快心亭(쾌심정)

龍飛鳳舞逗層空 허공중에 용과 봉이 날고  
桃李芳園紫靄濛 복숭아 배꽃 핀 동산에 자색 안개 어리네  
却愛春陵佳氣在 문득 용릉에 아름다운 기운이 있음을 사랑하니  
上林何獨賦青蔥 상림에서 어찌 유독 푸르름을 노래하리오  
右乾止山(건지산)<sup>17)</sup>

가장 먼저 노래한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이태조의 영정을 봉안한 곳이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남원의 황산벌에서 왜장 아지발도(阿只拔都)를 토벌하고 전주로 입성했던 이성계의 옛고사를 인용하였다. 온 몸을 갑옷으로 감싸고 있던 아지발도를 활로 쏘아서 죽이고 왜구를 토벌하였기 때문에 동한(東韓)은 평안하게 되었다고 칭송하였다. 그러한 이성계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경기전을 바라보는 화자는 곧 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움이 온 몸에 가득하다.

두 번째 노래한 ‘견훤도’는 곧 완주(지금의 전주)를 말한다. 완주는 곧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 곳이다. 후백제를 건국했던 견훤은 왕이 되기를 바랄 수도

17) 具鳳齡, 『栢潭先生續集』, 卷之二, 七言絕句.

없는 일자였다. 승구와 결구에서는 유덕자(有德者)에게로 민심이 귀의하듯, 민심이 덕이 있는 이태조에게 기울어짐으로서 완주의 풍정이 바르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세 번째는 ‘쾌심정(快心亭)’을 노래하였다. 쾌심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제남정(濟南亭)으로부터 4리 떨어져 있다.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 산이 끊어지고 물이 돌아 내려가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돌을 쌓아 터를 만들고 그 위를 정자를 세웠다<sup>18)</sup>.”라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정자가 사라지면서 전주팔경에서도 사라졌다.

‘건지산’은 전주의 주산(主山)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용릉(春陵)은 후한 광무제의 고향인 남양(南陽)의 지명이다. 또한 주돈이의 고향이기도 하다. 용릉은 곧 패향(佩香)의 다른 말이고, 이는 곧 전주를 의미한다. 상림은 궁중의 동산을 말한다. 건지산은 전주 이씨 시조인 이한(李翰)의 묘소를 조성한 조경단(肇慶壇)이 위치한 곳이다. 결구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어찌 짙은 녹음 같은 산의 풍경만을 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반어의 언술을 취함으로써, 건지산의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 공북정(拱北亭), 기린봉(麒麟峯), 봉황암(鳳凰巖), 제남정(濟南亭) 등을 더 노래하였다.<sup>19)</sup>

조선전기에도 이루어진 전주팔경과 관련된 지명들은 서거정이 맨 처음에 정했던 ‘경기전(慶基殿), 견훤도(甄萱都), 만경대(萬景臺), 기린봉(麒麟峯), 봉황암(鳳凰巖), 건지산(乾止山), 덕진연(德津淵), 공북정(拱北亭), 제남정(濟南亭), 쾌심정(快心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주천변의 물가에 세워졌던 공북정은 향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공부에 지치면 나와서 쉬던 공간이었다. ‘공북(拱北)’이라는 의미도 ‘임금이 계신 북쪽을 향해 고개를 조아린다’는 의미이다. ‘제남정’ 역시 임금이 계신 북쪽에 비추어 남쪽에 파견된 지방관리

18) 『신증』, 전주부, 누정편.

19)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拱北亭：螭陛丁寧一字欽。拜來天日照冠簪。傾陽豈敢斯須替。晨夜莪葵寸寸心。  
 麒麟峯：蔥蘢秀氣碧輪囷。漏洩坤靈萬古春。須識興王曾有象。前峯晴翠踴祥麟  
 鳳凰巖：人物寧論大小兒。穹巖山面峙雄姿。自從聖澤淪遐邇。彩羽和風日作儀  
 濟南亭：地靈人傑濟南多。文彩聲華軼古過。老杜詩名留秀句。風流千載較如何

가 그 지역을 잘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다. 공북정, 제남정은 실제 경치와는 상관없이 전주 향교와 밀접하게 연관된 누정들이다. 이는 조선전기에 소상 팔경 시를 본 따서 시를 짓는 과정에 유교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조선후기 전주 팔경의 특징

조선후기에 이르면 소상팔경을 수용하고 있는 문학적 범주가 한시에서부터, 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 무가, 시화, 설화, 판소리계 소설, 고소설, 종교 가사, 한문패사 등으로 확산된다.<sup>20)</sup>

오늘날의 전주팔경을 이야기한 인물로 추재(秋齋)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을 꼽을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활약한 조수삼은 말년(74세경, 1835년)에 전라도 관찰사로 2년 동안 호남지방에 머물렀다. 그 당시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시들 가운데 현재의 전주팔경과 부합하는 작품들이 그의 문집인 『추재집』 3권과 4권에 들어 있다.

### 죽림야우(竹林夜雨)

雨入竹中鳴達宵	비 내리는 대숲은 밤새 울어대니
竹聲相近雨聲遙	대소리가 가까우니 빗소리 멀어지네
伶人百隊人千口	악공 수천 명으로 하여금
口口爭吹綠玉簫	녹옥피리 다투어 부는 듯

죽림(竹林)은 완주군 상관면 만덕산 아래인 현재의 죽림온천 지역으로 추정된다. 전주인근은 예전에 대나무 숲이 우거졌고, 특히 상관면 일대는 매우 무성해서 '죽음리(竹陰里)'라고 하였다고 한다. 소상팔경의 첫수인 소상야우를 본 딴 '죽림야우'는 '죽림(竹林)+야우(夜雨)'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밤에 대숲에 내리는 빗소리는 낮에 듣는 빗소리와 달리 매우 뚜렷하고 크게 들린다.

20) 고전시가뿐만 아니라 현대소설과 현대수필에 이르기까지 소상팔경은 중요한 문학의 소재이자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경원, 『소상팔경-동아시아의 시와 그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7년, 83쪽, 93쪽.

그렇기 때문에 전구와 결구에서 수백 수천의 악공들이 다투어 피리를 분다  
고 표현하였다.

덕진채련(德津採蓮)

蓮唱初高刺掉頻	채련곡 노래 소리 높아질 때 배를 끌고 나서니
水禽驚起綠粼粼	물오리 놀라 일어나니 연잎이 맑도다
畫舫漸入花深處	놀이배를 타고 점점 꽃밭 속에 들어가니
一色紅粧不見人	온통 붉은 속에 사람은 보이지 않네

덕진연못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자세하지 않다. 다만, 후백제의 건훤이 도성방위를 위해 만들었다는 설도 있고, 고려 때 이미 호수가 있었다는 설도 있다. 또한 조선조에는 풍수적으로 보아 북쪽에 산이 없는 전주의 지형상, 북서쪽으로 빠져나가는 기운을 막기 위해서 건지산과 가련산을 이어 제방을 만들어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설도 있다.

덕진연못의 절반가량을 채우고 연꽃은 가장 큰 불거리로, 오월 단오를 맞아 피기 시작하여 한 달 가까이 꽃이 피고 진다. 단오가 되면 전주시내의 아낙네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 위해 덕진연못을 찾아 나서곤 했다. 놀이배를 끌고서 우거진 연밭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온통 여기저기 온통 붉게 피어 있는 연꽃만 보이게 된다. 조수삼은 이러한 절경을 팔경의 하나로 노래하였다.

동포귀범(東浦歸帆)

江鄉魚米不論錢	강마을에는 물고기와 쌀이 지천으로 널려있어
巨口長腰日貿遷	넓은 해구와 긴 강줄기를 따라 날마다 바꾸어 가네
試向南峯高處望	잠깐 남쪽 봉우리 높은 곳에 올라가 바라보니
遠帆無數入青天	멀리 수많은 돛단배가 푸른 하늘가에 떠 있네

동포귀범의 동포(東浦)는 '동지포(東之浦, 혹은 東止浦)'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동지포는 곧 만경강의 청하면 동지산(東之山, 혹은 東止山)리에 있는 옛포구를 말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조에 따르면 조선시대 전주의 관할은 서쪽으로 옥구 임피현 경계까지였다.

‘거구’는 ‘입이 큰 농어’라고 하고, 장요미(長腰米)는 모양이 좁다랗고 길쭉한 쌀의 일종으로 전자(箭子)라고도 하며, 한수(漢水)가에서 산출되는 절품(絶品)으로 꼽힌다. 하지만 짧은 절구의 형식에서 기구에 물고기와 쌀을 이야기하고, 승구에서 다시 ‘거구’, ‘장요’라는 말로 풀이를 하는 것은 언어의 경제적 측면에서 큰 낭비라고 할 수 있다. 즉, 승구의 ‘거구’와 ‘장요’는 농어나 쌀 대신에 동지포 일대의 경치를 묘사한 것으로 풀이해야 풍경이 풍부해진다. 이에 ‘넓은 강어귀’와 ‘긴 강줄기’로 해석하였다. 전구의 ‘남봉(南峰)’은 청하면 신창진 뒤쪽에 있는 조그만 봉우리의 지명이다. 만경강이 신창진을 돌아서 서해바다와 마주하는 곳에 이르면 남봉보다 높은 곳이 없다. 그래서 남봉에 올라가면 신창진 앞으로 왔다갔다하는 배들을 볼 수 있다.

#### 인봉토월(麟峯吐月)

麟峯雙鬢碧嵯峨	기린봉 두 봉우리 푸르게 우뚝 솟고
秋月迢迢漾素波	가을 달빛은 멀리서 하얗게 일렁이네
五木臺前黃葉盡	오목대 앞의 노란 잎은 다 하고
南川橋上醉人多	남천교 위에는 취한 사람이 많네

인봉토월은 기린봉 위로 달이 떠 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현재의 기린토월에 해당한다. 인봉토월은 달을 감상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봉토월에서는 다른 시들에 비해서 지명이 많이 사용되었다. 기구의 ‘인봉(麟峰)’은 전주부 동쪽에 위치한 기린봉을 말한다. 전구의 ‘오목대(五木臺, 梧木臺의 誤記)’는 이성계가 왜장 이지발도를 황산벌에서 토벌하고 전주에 이르러 잔치를 했다는 곳이고, 결구의 ‘남천교(南川橋)’는 전주천에 걸쳐 있는 다리이다. 기구, 전구, 결구에서 ‘인봉, 오목, 남천’이란 지명이 사용되었다면, 승구에 쓰인 ‘추월’의 경우도 지명일 가능성이 많지만, 이에 해당하는 지명은 찾지 못하였다.

#### 한벽청연(寒碧晴烟)

遠視迷離近即空      멀리서 보면 아득하고 가까이 보니 텅 비었는대

一川寒碧漾冥濛	전주천 가의 한벽당은 흐릿하게 일렁이네
隔村多少斜陽樹	건너 마을에는 석양 아래 서너 그루 나무들
只坐輕籠淺抹中	다만 열게 붓질한 듯 앉아 있네

한벽당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7~8차례의 중수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속중때 관찰사 이사명(李師命)은 별도로 여러 층의 누각을 창건하고 화려하게 단청하였다.<sup>21)</sup> 완주부성 지도와 규장각 지도에 나타난 것을 참조하면, 이 때 지어진 한벽당은 비탈면을 따라서 4동의 건물이 일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한벽청연의 시간적 배경은 해질 무렵이다.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과, 해가 지고 난 직후 완전히 어두워지기까지는 하루 중에서 가장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이 시간에 사물은 흐릿하게 보여서 물건을 똑바로 보기 때 우 어렵다. 기구와 승구는 초저녁 시간대에 밖에서 본 한벽당의 모습이다. 전주천변에 세워진 한벽당은 뒤편에 발산 자락이 자리하고 있어 더욱 어렵게 보이기 마련이다. 건너 마을에 석양이 지는 가운데, 서너 그루의 나무들은 수목화에서 열게 붓질한 듯 서 있다. 전구와 결구는 아침저녁으로 안개가 자주 끼는 형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로 보아서 한벽청연은 남원쪽에서 들어 오는 입구에서 한벽당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 남고모종(南固暮鍾)

城郭鍾聲何處聞	성곽의 종소리 어디에서 들리나
上方斜日下方曛	상방에 석양이 드니, 문턱이 따뜻하네
回頭更欲尋初地	머리 돌려 다시 초지를 찾으려니
惟見空山多白雲	텅 빈 산에는 흰구름만 보이네

남고모종은 남고산 남고사의 저녁 종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남고산성은 전주 남쪽의 고덕산과 천경대, 만경대, 억경대로 이어진 봉우리를 연결하여 쌓은 산성이다. 이 산성의 안쪽에 남고사가 있다.

불교에서 종을 치는 이유는 모든 중생이 종소리를 듣는 순간 번뇌가 없어지고 지혜가 생겨나 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다. 상방

21) 정훈, 「한벽당 제영시 연구」, 『우리어문연구』 27권, 우리어문학회, 2006.

(上方)은 관아의 우두머리가 거처하던 방을 이르던 말이고, 하방(下方)은 벽의 맨 아래쪽 기둥사이를 가로지른 나무를 이른다. 초지(初地)는 십지(十地)의 처음 단계로, 번뇌를 끊고 마음속에 환희를 일으키는 경지로서 환희지(歡喜地)라고도 한다. 저녁에 해가 지면서 절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듣고 초지를 찾으려고 했지만 산에는 무심히 흰 구름만 보이고, 찾고 싶은 초지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화자가 찾으려는 ‘환희지’는 ‘남고사’를 의미한다. 전주 시내에서 바라보는 남고사는 산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결국은 이런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위봉수폭(威鳳垂瀑)

白練垂垂掛翠微	하얀 비단이 푸른 산에 걸린 듯
雨絲霞線染餘暉	빗줄기는 저녁노을에 물드네
何人直把并刀去	어느 누가 곧바로 칼을 가지고 가서
斷下清秋織女機	맑은 가을 하늘아래 직녀가 짠 베를 잘라놓았나

위봉수폭은 위봉산 동문쪽에 있는 위봉폭포를 말한다. 위봉폭포는 높이가 60m로, 2단으로 물줄기가 쏟아진다. 물이 떨어지는 폭포 주변의 기암괴석과 어우러져 절경을 형성한다. 기구의 하얀 비단이 푸른 산에 걸린 듯한 것은 위봉폭포의 물이 떨어지는 모양을 표현하였다. 위봉폭포는 태양을 등지고 있는 위봉폭포의 하얀 물줄기와 석양에 물드는 빗줄기가 묘한 대비를 형성한다. 위봉수폭은 기구부터 결구까지 모두 위봉폭포의 떨어지는 물줄기를 형상화하는데 주력하였다. 하얀 비단, 푸른 산, 저녁노을에 물든 빗줄기, 그리고 맑은 가을 하늘은 백색, 붉은 색, 푸른색이 서로 강렬한 색으로 대비되게 그리고 있다.

비정낙안(飛亭落雁)

飛飛亭下雁飛秋	비비정 아래 가을 기러기 내려앉은
水碧沙明十里洲	물 맑고 모래 고운 명사십리길
北望京華何處是	북쪽 서울 집은 어느 곳이던가
家書容易到南州	편지는 쉽게도 남주에 이르네 <sup>22)</sup>

비정낙안은 평사낙안에 해당하는 시다. 비정(飛亭)은 비비정의 줄임말로, 삼례를 지나는 만경강가에 서 있다. 그 밑으로는 하얀 모래밭이 십리에 걸쳐 펼쳐져 있었다고 해서 명사십리라고도 한다.

정자는 선조 6년(1573)에 무인 최영길이 건립하였으며 몇 차례 쇠락을 거듭하여 현재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 최영길의 손자 최양이 우암 송시열에게 부탁하여 지은 「비비정기(飛飛亭記)」에서 송시열은 ‘비비’라는 말의 뜻을 “지명에서 연유하였다기보다는 익덕 장비(張飛)의 신(信)과 용(勇), 악비(岳飛)의 충(忠)과 효(孝)를 본따서” 비비(飛飛)<sup>23)</sup>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 조수삼이 노래한 전주팔경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팔경명칭	장소	시간/계절	주요이미지
죽립야우	완주 상관면 죽음리	여름밤중	한밤중 대숲에 내리는 비
덕진채련	전주 덕진연못	초여름	초여름 연못에 가득한 연꽃
동포귀범	김제 청하면 동지포	가을	강을 따라서 오르내리는 돛단배
인봉도월	전주 기린봉	가을밤	가을날 달이 하얗게 뜬 한밤중
한벽청연	전주 한벽당	저녁무렵	석양빛을 받고 있는 한벽당
남고모종	전주 남고사	저녁무렵	저녁 무렵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
위봉수폭	완주군 위봉산	저녁무렵	위봉폭포에서 물이 쏟아지는 모습
비정낙안	완주 삼례 후정리	가을	명사십리길에 기러기 앉는 모습

조수삼은 전라도 관찰사로서, 그가 관할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주팔경을 노래하였다. 계절적 배경으로는 여름과 가을이 주로 사용되었고, 시간상으로는 해질 무렵이 주로 사용되었다. 조수삼이 전주의 승경을 노래한 이후에 사람들이 여덟 가지 풍경을 합해서 전주(완산)팔경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다가사후(多佳射侯), 남천표묘(南川漂母)를 합해서 ‘전주십경’이라고도 한다. 다가사후는 전주 서부에 위치한 다가산의 아래 천양정(穿楊亭)에서 활

22) 趙秀三, 『秋齋集』 卷三, 卷四

23) 宋時烈, 『宋子大全』, 卷一百四十四, 記

因名亭之義。則曰因地名而名之也。余曰。君世世將種也。古者張翼德之信勇。岳武穆之忠孝。皆名以飛。而曠世相感。豈非武臣之所當勉慕者耶



쫄는 모습을 말한다. 천양정은 숙종 38년(1712)에 처음 지어졌다가 순조 30년(1830)에 중건되었다. 그리고 남천교 아래에서 이불 빨래하는 아낙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 남천포묘이다.

일제강점기 성도숙사(成島淑士)가 설정한 전주부의 명승지<sup>24)</sup>는 경기전(慶基殿), 공북정(拱北亭), 만경대(萬景臺), 덕진지(德眞池), 조경단(肇慶壇), 쾌심정(快心亭), 오목대(梧木臺), 대원사(大圓寺)로 되어 있다. 성도숙사가 설정한 전주부의 명승지는 조수삼의 시에 비해 후퇴한 느낌이다.

승경을 읊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일제강점기 신석정이 장만영에게 보낸 시에서 전주팔경은 조금 변하였다.

#### M형

기왕 이야기가 나온 길이니, 우리 고장 자량을 좀 더 늘어놓기로 하겠습니다.

전주하면 그 규모야 적은 고장이지만, 산자수명한 풍광이야 어디에 못지않으니 <전주팔경>하면 못보아 한이 될 만합니다. 동으로 솟아오른 기린봉에 떠오르는 달을 일러 기린토월 麟吐月이라 하여 제1경을 삼고, 전주천 기슭에 자리한 한벽당의 풍정을 말하는 한벽청연 寒碧晴煙이 제2경이요, 남고산의 저녁노을을 헤치고 울려오는 남고모종 南固暮鍾이 제3경이요, 전주천의 빨래하는 풍정을 말하는 남천포묘 南川漂母가 제4경이요, 덕진 연못의 연꽃 꺾는 덕진채련 德津採蓮이 제5경이요, 위봉사 아래 옥으로 부서지는 폭포가 있으니 위봉폭포 威鳳瀑布라 하여 제6경이요, 한내(전주천하류)에 내려앉는 기러기 떼를 비비낙 雁飛飛落雁이라 일러 제7경, 고산 高山과 봉동 鳳東의 냇물에 낚싯배 오르내리는 것을 동포귀범 東浦歸帆이라 하여 제8경을 삼으니, 주말을 즐길 수 있는 고장들입니다.

<전주팔경>이 눈으로 즐기는 풍경이고 보면, 입으로 즐길 수 있는 <전주팔미>가 있으니, 음식사치로 유명한 이 고장의 자랑이라면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당골 파라시(8월에 먹는 감), 기린봉 열무, 오목대 청포묵, 소양(所陽) 담배, 전주천 모자(물고기), 한넷 계, 사정골 콩나물, 서원書院 너머 미나리로 모두 전주 음식의 감칠맛이 자랑이라면 자랑이 되는 것들이라 하겠습니까.<sup>25)</sup>

24) 成島淑士, 『朝鮮名勝詩選』, 경성, 연문사, 대정4(1915), 161-162쪽.

25) 신석정, 「전원으로 내려오십시오」, 『촛불』, 범우문고, 2004, 46쪽. 위의 작품은 1939년 장만영과 교류하면서 그를 전주에 초대하기 위해 보낸 서간문형 수필이다.

위의 글은 신석정이 장만영을 전주에 초대하면서 보낸 서간문형 수필이다. 여기에서 신석정은 전주의 팔경과 팔미를 자랑하며 M형이 전주로 내려오면 이 좋은 경치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으니 어서 오라고 초대를 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조수삼이 지은 전주팔경과 신석정이 말한 전주팔경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조수삼이 전주팔경을 지은 시기는 전라도 관찰사로 활동한 1835년경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석정이 위의 글을 발표한 것은 1939년 경이다.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전주팔경의 내용이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수삼의 팔경	신석정의 팔경	비고
1	죽림야우		
2	덕진채련	덕진채련	
3	동포귀범	동포귀범	장소 변경
4	인봉토월	기린토월	명칭 변경
5	한벽청연	한벽청연	
6	남고모종	남고모종	
7	위봉수폭	위봉폭포	명칭 변경
8	비정낙안	비비낙안	명칭 변경
9		남천표모	새로 편입됨
10		다가사후	새로 편입됨

가장 먼저 죽림야우가 사라졌다. 해방 전까지만 해도 전주 인근에 대숲(죽림)이 매우 많았고 특히 죽림일대는 대나무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죽음리(竹陰里)란 지명이 생겨났고 이를 줄여서 ‘죽림’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명의 특성이 되었던 대숲(竹林)은 전주의 발전과 함께 사라지고, 죽림은 대숲이라는 단순한 보통명사로 바뀌었다. 장소의 특성이 사라짐에 따라 <죽림야우>도 사라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동포귀범의 장소에 대한 인식이다. 조수삼은, 동포(東浦)를 김제 청하면 동지포(東止浦)로 그렸다. 이는 동지포 일대가 조선시대 전주부의 관할 구역이었기 때문에 관찰사로 있던 조수

삼이 그곳의 풍경을 그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동지포는 관찰구역이 김제군으로 재정비 되었다. 즉, 동지포의 관찰권이 전주권을 벗어나 김제군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신석정은 동포를 완주군의 '고산(高山)과 봉동(鳳東)의 냇물에 낚싯배 오르내리는 것'으로 그렸다. 이는 동포귀범에 해당하는 포구를 전주지역에서 찾다보니 봉동일대를 동포라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고기와 쌀을 바꾸어가던 큰 배는 봉동 물길을 오르내리는 낚싯배로 바뀌었다. 셋째는 명칭의 변경이다. 인봉토월은 기린토월로, 위봉수폭은 위봉폭포로 명칭이 바뀌었다. '인봉'은 원래 기린봉(麒麟峯)의 줄임말이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 '기린봉 밑의 마을'이란 뜻의 '인봉리'란 지명이 생겨났다. 이 때문에 팔경의 명칭이 지명과 겹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을 뜻하는 '기린'으로 바뀌었다. 수폭은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폭포로 바뀌었다. 넷째는 추가된 남천표모와 다가사후이다. 전주팔경을 그리는 8수에 어떤 풍경을 시로 노래하였는가하는 내용이 있지만, 남천표모와 다가사후는 시의 내용은 사라지고 이미지만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이미지만 제시하는 현상은 완산 32경에서 극대화된다.

완산승경은 이철수(1971)가 전주 및 완산지역에 구전되는 경승 32곳을 『완산승경』이란 책자에 소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완산32경은 전주와 완주의 대표적인 경관 32곳을 읊은 것으로 4자의 표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전주팔경 역시 완산32승경에 들어있다.

1. 기린토월(麒麟吐月) 2. 유연낙조(油然落照) 3. 완산칠봉(完山七峰)
4. 한벽사경(寒碧四景) 5. 동성수납(東城睡納) 6. 남고모종(南固暮鐘)
7. 사대병암(四大屏岩) 8. 은석동학(隱石洞壑) 9. 다가비설(多佳飛雪)
10. 오목요대(梧木瑤臺) 11. 간납자규(諫納子規) 12. 진북쇄월(鎭北灑月)
13. 가련청람(可連晴嵐) 14. 덕진채련(德津採蓮) 15. 건지송뢰(乾止松籟)
16. 삼천세우(三川細雨) 17. 단암공영(丹岩空影) 18. 모악요하(母岳纒霞)
19. 죽림천엽(竹林千葉) 20. 만마도관(萬馬道關) 21. 법사장한(法史長恨)
22. 구진용마(九進戎馬) 23. 동포귀범(東浦歸帆) 24. 대아수간(大雅垂竿)
25. 고달귀운(高達歸雲) 26. 보광유경(普光幽徑) 27. 경각심홍(鯨角深紅)
28. 대천과설(大川波雪) 29. 황방괘월(黃彪吠月) 30. 위봉폭포(威鳳瀑布)
31. 운제백련(雲梯白蓮) 32. 대둔천잠(大屯千岑)<sup>26)</sup>

전주팔경의 이미지화가 진행되면서 실제의 풍경은 사라지고 결국 이미지만 남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이 ‘완산 32승경’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완산 32승경은 실제 어떤 풍경을 그렸는지는 상관없이 오직 특정 지역과 그 지역에 어울리는 이미지만을 제시하여 전주와 완주인근의 명승지 32곳을 선정하였다.<sup>27)</sup>

### 3. 팔경의 변화가능성

소상팔경은 처음에는 실경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정형화되어 아름다운 경치의 대표적인 예로 간주되었고 승경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소상팔경이 전해진 초기에는 소상팔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창작되었지만, 시대가 흐르고 작자층이 다양화되면서 시의 내용도 다양화되고 관념화·지역화 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는 각 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팔경이 존재하게 되었다.

전주 지역의 승경과 관련한 시문에도 ‘팔경’ ‘십경’, ‘32경’ 등이 있다. 조선 전기에 사가 서거정은 이한산이 보내온 시에 차운하여 전주의 승경을 노래한 <패향십영(沛鄉十詠)>을 지었다. 백담(柏潭) 구봉령(具鳳齡)은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빈일헌십영 차운>시에서 전주의 여덟 곳을 차운하였다. 서거정이나 구봉령이 지은 전주의 승경은 현재의 전주팔경과는 거리가 멀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추재 조수삼이 전라도 관찰사로서 전주에 머물며 전주의 승경을 노래하였다. 후세의 사람들이 조수삼의 시들 가운데에 전주를 대표할 만한 팔경을 묶어서 현재의 전주팔경이 되었으니, 죽림야우(竹林夜雨), 덕진채련(德津採蓮), 동포귀범(東浦歸帆), 인봉도월(麟峯吐月), 한벽청연(寒碧晴烟), 남고모종(南固暮鍾), 위봉수폭(威鳳垂瀑), 비정낙안(飛亭落雁)이 그것이다. 전주팔

26) 이철수, 『완산승경』, 전주청년회의소, 1967년.

27) 김경문·권재진·노재현, 「완산 32승경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완산주의 공간 및 경관인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권 4호, 2009년 12월.

경의 대부분은 전라도 관찰사가 관할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계절적 배경으로는 여름과 가을이 주로 사용되었고, 시간상으로는 해질 무렵이 주로 사용되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면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 전주팔경에도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죽림야우는 '죽림'이라는 지명이 보통명사화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전주의 행정관할 구역이 줄어들면서 동포귀범의 '동포'는 김제 동지포에서 완주 봉동으로 변하였다. 지명의 특징을 강화하기 위해 '인봉'은 '기린'으로, '비정'은 '비비'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팔경문화'가 시대적이고 공간적인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변화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즉 미래에 주변환경이 변화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 그에 따라 팔경도 다양하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주제어 : 팔경문화, 소상팔경, 전주팔경, 조수삼, 인식변화, 관할지역

## <참고문헌>

### 1. 기본서 및 참고 문집

『國譯 東文選』

『完山誌』

『全州市史』

具鳳齡, 『栢潭先生續集』

民族文化推進會, 『國譯 新增東國輿地勝覽』, 1967.

徐居正, 『東人詩話』, 『四佳集』

蘇學奎, 『說齋遺稿』

宋 純, 『俛仰集』

宋時烈, 『宋子大典』

申光漢, 『企齋集』

梁大樸, 『清溪集』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李基敬, 『木山遺稿』

李齊賢, 『益齋亂藁』

趙秀三, 『秋齋集』

### 2. 단행본

변종현, 『高麗朝漢詩研究-唐宋詩 수용양상과 그 한국적 변용』, 태학사, 1994.

신석정, 『촛불』, 범우문고, 2004.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오주석,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솔출판사, 2002.

이남일, 『옛 누정의 시와 풍류』, 재전운봉향우회, 2002.

이창룡, 『누각과 정자에서 읊은 시세계』, 푸른사상, 2006.

이철수, 『全州野史』, 전주시 관광협회, 1967.

전경원, 『瀟湘八景-동아시아의 시와 그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7.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북의 누정』, 신아출판사, 2000.

정 훈·손애화·박완식, 『전주 한벽당』, 신아출판사, 2011.

### 3. 선행연구 논문 및 참고문헌

강영조·김영란, 「한국팔경의 형식과 입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0, 1991, 27-36쪽.

고연희, 「소상팔경 - 고려와 조선의 詩畵에 나타나는 受容史」, 『동방학』 9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3.

고영진, 「16세기 호남 사림의 활동과 학문」, 『남명학 연구』 3집,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3.

김기탁, 「益齋의 <瀟湘八景>과 그 영향」, 『중국어문학』 13집, 영남중국어문학회, 1981.

김동준, 「16세기 누정한시 연구」, 서울대 석사, 1994.

김신중, 「소상팔경시의 관습시적 성격」, 『고시가연구』 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김은미, 「조선초기 누정기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1.

김정문·권혜진·노재현, 「완산 32승경을 통해 본 조선후기 완산주의 공간 및 경관인식」,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권 4호, 2009년 12월.

노재현, 「소상팔경, 전래경관 텍스트로서의 의미와 결속구조」, 『한국조경학회』 37-1, 2009, 100-119쪽.

성원경, 「瀟湘八景이 國內八景에 미친 影響考」, 『石溪趙仁濟博士還曆紀念論叢』, 1977.

신상섭·노재현, 「경관정체성 향상을 위한 전주팔경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6(4), 1999, 25-35쪽.

여기현, 「소상팔경의 수용과 양상」, 『중국문학연구』 25집, 한국중문학회, 2002.

\_\_\_\_\_, 「소상팔경의 시적 형상화 양상」, 『반교어문연구』 15집, 반교어문학회, 2003.

정용수, 「소상팔경의 문학적 성격」, 『사숙재 강희맹 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3, 138-151쪽.

정 훈, 「한벽당 제영시 연구」, 『우리어문연구』 27권, 우리어문학회, 2006, 205-228쪽.

조동일, 「산수시의 경치, 흥취, 주제」,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5-23쪽.

지봉구, 「동양의 관광콘텐츠 - 팔경과 구곡에 대하여」, 부산국제관광학술대회, 2008.

최은주, 「조선시대 팔경시의 창작경향」, 『대동한문학』 15집.



[Abstract]

## A Study on a Eight Scenery Poems for the Jeonju's Character and Formation

Jeong, Hun

This paper studies the Jeonju-Palkyoung's poems. SoSang-PalKyoung's poems describe a real scenery at the first time. As time passed by SoSang-PalKyoung's poems changed a ideation and standardization. So SoSang-PalKyoung's poems became a representative poem of a nature poem of the season. Since passed from Chinese to Korea, SoSang-PalKyoung's poems produce a suitable poem for each the districts.

Today, It is a Palkyoung(八景), Sibkyoung(十景), Samsibeekyoung(三十二景) in Jeonju. In the first half year of the Joseon Dynasty, Seo geo-jeong and Gu bong-ryeong sang the 'paehyang(沛郷:全州)' where a spectacular view of the Jeonju. But it had become clear that while it is far from today Jeonju-PalKyoung. As the Jeolla-do observe Corp, Jo su-sam sang the eight spectacular view of the Jeonju in the late Joseon dynasty,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to now, Jeonju-PalKyoung shift changing from place to place and across time. This change provide proof for Palkyoung's shift due to changes in the space and the time. That is to say, Palkyoung change due to changes in the space and the time in the future.

**【Key words】** : the culture of PalKyoung, SoSang-PalKyoung, Jeonju-PalKyoung, Jo su-sam, Change in the perception, area Command

정 훈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국어국  
문학과

전자우편 : jhappy29@nate.com

---

---

이 논문은 2013년 4월 25일에 투고 되었으며, 2013년 5월 31일에  
심사 완료되어 6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